

#1. 아침조회

상반기 프로모션 '누리사랑 건강보험' 실적의 결과가 영업 3팀 썬샤인의 백태균 컨설턴트에게 가게 된다. 태균은 환호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와 트로피와 격려금, 그리고 몰디브 여행권까지 받는다. 이어 조매력 마스터의 멋진 카리스마 연설이 시작된다.

마스터: (두손을 모으고 교양있는 척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들도 보셨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거예요. (감동의 눈물을 닦는 척) 난 백태균씨가 이 자리에 오기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든걸 알고있어요.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웅변하 듯) 먹는것도 자는시간까지 아끼며 치밀하고 계획있게 고객 리스트를 정리하며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이 깨지면 또 잡고...집까지 찾아가 계약을 완성해 오는 그 모습을 말이죠. 모두! 백태균씨의 열정을 잊으면 안됩니다. (사원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말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백태균씨를 위해 뜨거운 박수함께 보내볼까요? (함께 박수를 치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자! 그럼 한주간도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시작한다) 여러분의 그 열정은 프로모션이라는 보너스에 격려금으로 돌아올 것이고 구질구질한 내 삶을 바꿔놓을꺼예요! 아직도 경차타며 공영주차장에서 할인받는다 좋아들 할꺼예요? 그 경차살 돈도 없어서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로 가득 찬 대중교통 이용해 고객들 찾아가고 싶어요? 벤츠타고 고객만나러 가세요! 모나미볼펜 말고 몽블랑펜으로 싸인받으세요! 그 싸인으로 우리는 구질구질한 지금을 삶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거 하고, 먹고 싶은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는거예요. 그게 삶이고 그게...(격정에 감정을 추스리며 한숨을 내쉬며 고른뒤 말한다)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천국의 삶입니다. (조금씩 강하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려고 우리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 컨설턴트가 있는 겁니다. (사원들을 보며) 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까?

컨설턴트 모두: 네~~~~~!!

마스터: 아! 그리고 영업1팀 마스터블루 이지혁씨!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정색하듯 말한다)지혁씨는 나 좀 잠깐 볼까요?(찬바람이 몰아치듯 돌아서 마스터 룸으로 들어간다)

#2. 마스터룸

잔뜩 긴장한 이지혁이 들어오고, 마스터는 책상에 앉아 바로 앞에 서있는 지혁을 보며 이야기한다.

마스터: (쌀쌀맞게 이야기한다) 이지혁씨...우리 회사 입사한지 얼마나 됐죠? (조금씩 격양된 목소리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우리 회사에서 무능한 그 실력으로 기본급만 받아간지 얼마나 됐죠? 맞아요! 난 지혁씨 같이 무능한. (급하게 말을 끊으며) 아니...특정하진 않을게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말한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 실적 하나 없이 기본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그런 사람. 난 키우고 싶지 않아요. 팀에게도 당연히 피해일것이고...

이지혁: (바짝 긴장해 고개를 숙이고 듣고 만 있다)

마스터: (의자를 끌어 지혁이 서있는 곳에 밀착하며 말한다) 지혁씨도 이젠 기본급만 아니라 성과급도 받고 프로모션으로 상반기 보험왕도 해보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비꼬듯) 뭐...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됐겠죠. (아까와 상반되게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친근히 말한다) 이 바닥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거 지혁씨도 알꺼예요 아마....(지혁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말한다) 어머...이 튼실한것좀 봐...우리 지혁씨 운동하나보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객만해도 수천명이예요. 그중에 계약 갱신에 신규고객까지 내가 밀어준다면...다음 프로모션 1등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바라는 거 한가지! 지혁씨 잘되는거 보는거예요. 이젠...(한숨을 내쉬며 대사를 끊어준 후 이어 말한다) 지혁씨한테 달렸네! (말이 끝나고 지혁을 향해 미소 지으며 윙크를 날린다)

CUT!